

HRD
8월의 이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명 변경

- 베스트직업훈련기관 10개소 선정
-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사업 운영

총 **94,020**명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선정

101개교, **148**개 학과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103개 업종



6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58.2만명 증가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있게 한다.**

- 조슈어J.마린 -

통권 제65호
발행일 2021년 8월 13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052-714-8327
구독신청 및 문의 jycheon47@hrdkorea.or.kr



cover story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를 통해
뜨거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책 NOW

- 0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등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5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 본격 운영
- 06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
- 08 중소기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 09 2021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선정 결과 발표

현장 NOW

- 10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직업훈련기관 10개소 선정 발대식 개최
- 11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
- 11 제7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개최
- 12 '21년 제1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 개최
- 13 2021년 4월·5월·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 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사례집 발간
- 15 워크넷으로 코로나 극복! 취업성공 수기 공모전 당선작 공개
- 16 고용센터에서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집중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7 2021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계획
-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 BRIEF

- 18 2021년 6월 고용동향

연구 ISSUES

- 20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육성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 20 중장기 인력수급 변동 요인 분석
- 21 2021 KLI 노동통계
- 21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의 직종별 전공분야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기관 PLAN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책NOW 1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등
●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명 변경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2021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훈련내용을 확대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

1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 ◇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했다.
- ◇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지원대상을 근로자, 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오해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상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하여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 지원의 실질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성이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과정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 ◇ 이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창의적 사고력, 인문소양 과정 등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창의·융합적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명령 부과

-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훈련기관에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미 이행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공포일

1 취업을 위해 노력한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전 규정에 따르면, 청년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최근 2년 내 일정 기간(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만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인턴 활동 등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은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 ◇ 이를 반영해 취업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을 개정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생계의 부담을 덜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안 등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

●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 시범사업 본격 운영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 본격 운영 보도자료



2021년 7월 12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12일(월), 홈스토리생활의 ‘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 훈련과정을 시작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7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총 94,020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정된 6개 기관 10개 과정의 훈련분야는 인공지능, 청소, 보육, 자동차운전운송이며, 데이터 라벨링 입문·중급, 생활청소표준,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 강화 등 훈련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기관 목록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분야
주식회사 클라우드웍스	데이터 라벨링 입문과정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중급과정	인공지능
(주)생활연구소	생활청소 표준과정	청소
홈스토리생활	전문 가정관리사가 갖춰야 할 가정관리실무 지식과 서비스마인드 훈련과정	청소
(주)맘편한세상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과정	보육
짜깁악어주식회사	발달놀이 입문과정	보육
	창의미술 전문가 과정	보육
	돌봄선생님 입문과정	보육
렉스아카데미 평생교육원 경기지역본부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 과정	자동차운전운송
	플랫폼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강화 보수과정	자동차운전운송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의 핵심은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및 안전·근로권의 교과를 필수교과로 지정해 플랫폼 종사자에게 특화된 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훈련생이 훈련을 수료한 경우 훈련생의 소득증가 또는 처우개선 성과를 훈련기관이 직접 증빙하도록 하여 훈련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형태·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훈련과정 편성이 어려워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최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21.6.30.)으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어, 플랫폼 종사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특화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훈련은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희망자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훈련비를 계좌 한도 내에서 1회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처음 도입되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권익 보호, 직무의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소득증대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

2021년 7월 22일, 고용노동부

정부는 7월 22일(목),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내연기관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지원

1 재직자들의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25년까지 10만 명 실시하는 등 신산업분야 직무전환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유망직종으로의 직무전환을 촉진하겠다.

* 기업에게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등 지원

◇ 산업별 단체 등과 협업하여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민간의 우수훈련시설을 공유하는 등 민간 중심의 체계적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대기업 등이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대기업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근로자도 양질의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사업전환 과정에서 기업 노사 협약을 통해 직무전환·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노사가 함께 직무전환 훈련을 설계하고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 등 지원을 우대하는 ‘노사협력형 직무능력향상 사업’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 불가피한 인력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지원 강화

◇ 전직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직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발전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ISC)를 통해 사전 전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 중 생계 불안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연1%)로 생계비 대부분을 지원하겠다.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기업에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재취업도 유도하겠다. 이와 함께 취업취약계층 대상 폴리텍 훈련을 확대하고,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등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3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 대응

◇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 및 고용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원을 통해 지역별로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 특히 폐쇄가 예정되어 있는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강구 하겠다.

◇ 지역의 주력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의 퇴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전환·다각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해당 산업의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 지원, 고용촉진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발표 보도자료



철강·정유·시멘트 등 노동전환 지원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산업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디지털화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

1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IT Tool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

2 디지털 기술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확대·강화

◇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S-OJT)하고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90%까지 상향 지원(’25년까지 400만 명)하겠다. 지역별 대학의 ICT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박사 수준의 디지털 고급인력 양성도 추진하겠다.

3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한 전 국민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하여 제도적·재정적 준비

◇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확대·개편하겠다. 아울러, 민간훈련기관, 폴리텍 대학 개편을 통해 핵심인재, SW 전문인력양성 교육도 대폭 확대하겠다.

제도적 기반 마련 등

- ◇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등에 전담 추진기관을 설치하여 사업전환·재편부터 전직지원·훈련·디지털전환까지 통합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현장단위에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
- ◇ 공정한 노동전환은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전제되는 개념인 만큼 향후 중앙과 지역단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대책도 적극 논의하겠다.
- ◇ 올해 하반기에는 대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겠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분야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현재 가용수단을 활용해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부터 집중지원하고 사전 수요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 중소기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 시범사업 시행

직업훈련 참여 문턱은 낮추고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 제공

2021년 8월 2일,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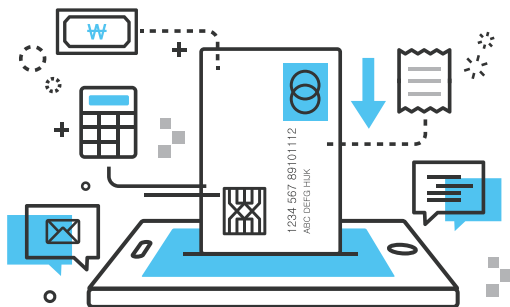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직업훈련 참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만 개 기업,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훈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관 사전 인정, 훈련과정 적합 심사 등 절차가 까다로워 중소기업엔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다. 또한, 위탁하여 훈련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당한 훈련과정을 찾기도 어렵고, 기업에 맞는 훈련과정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카드는 최근 3년간 훈련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된다. 발급받은 카드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엄선된 우수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자부담 10%의 비용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자체적인 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도 훈련계획 수립, 훈련과정 설계, 훈련실시 등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컨설팅을 받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장기적인 직업훈련체계가 정착되도록 최대 3년간 지원된다.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은 사전 모집(6.30.~7.13.)하여 7월 30일 현재 총 58개 훈련기관, 1,089개 과정이 선정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분야 64개 과정, 기계·전기전자 분야 76개 과정, 경영·회계 분야 711개 과정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이 준비되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은 8월 2일부터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여, 올해 연말까지 5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분석한 후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을 통해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가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참여 패스트트랙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를 확대·활성화 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보도자료



● 2021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선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101개교, 148개 학과 개편 추진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장,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유망산업분야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

2021년 8월 2일,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01개교 148개 학과의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가속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수요도 달라지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로부터 재구조화 신청을 받아 필요성, 실행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2019년 125개, 2020 153개 학과 개편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148개 학과를 선정했다.

올해는 기계 분야(32개), 전기·전자 분야(25개)로의 학과 개편이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17개), 농림·수산·해양분야(14개)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바이오 관련 분야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초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이 다수 선정되어, 미래 유망 산업분야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산업 확대에 따라 반려동물, 미디어·콘텐츠 제작, 보건 관련 분야도 다수 선정되었으며, 학생의 수요가 높은 외식산업·제과·제빵 분야로의 학과 개편도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 연계 학과개편 주요 사례

학교명	선정학과명	교과군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인공지능컴퓨팅과	정보통신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바이오코스메틱과	화학공업
전남공업고등학교	드론측량과	건설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스마트시티과	토목
울산산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팜과	농림수산해양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	미래자동차부품가공과	기계
금호공업고등학교	스마트팩토리과	기계

선정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학과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과개편에 필요한 교육과정 준비·운영, 교원 확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선정된 학과 재구조화 상황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는 데 있으며, 교육부는 신산업·유망산업 분야와 연계한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여 기초 기술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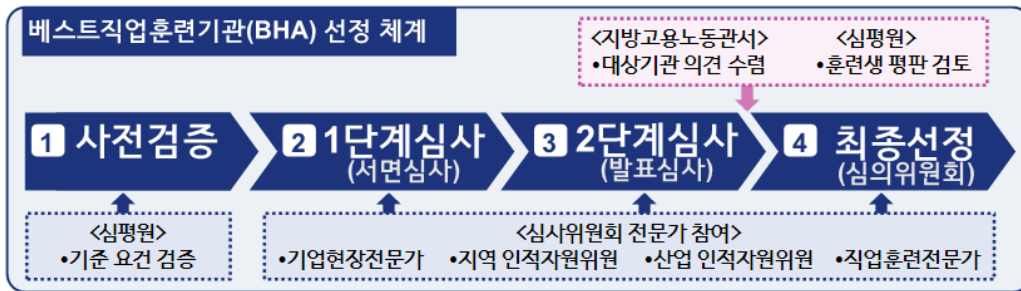
현장NOW 1

●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직업훈련기관**
● **10개소 선정 발대식 개최**

2021년 7월 6일,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총장 이성기)은 7월 6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패를 수여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여 직업훈련의 첨단화·디지털화를 선도할 훈련기관을 선정, 우수사례로 육성함으로써 전체 훈련기관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은 전국 3,555개소 훈련기관 중 우수 훈련기관 543개소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혁신 사례를 공모하여(81개소 참여) 10개소를 선정했으며, 향후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에는 훈련생 선발권 부여, 훈련과정 운영 자율성 부여, 훈련생 평가 자율 시행 등 훈련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 혼합훈련,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등 미래형 디지털 직업훈련 혁신 시험대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 행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 혁신훈련 사례를 발표한 (주)휴넷(대표 조영탁)은 온라인 훈련기관으로 수년간 쌓아온 기업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 새로운 훈련모델을 창출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각각 효율적으로 살린 플립러닝에 게임의 요소를 더하여 학습 몰입과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 시킨 게이머닝 훈련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직업훈련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이사장 광승호)는 (주)위저드정보시스템, 3D Automation 등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정보보호, 지능형 공장 등 신기술 분야 특화 직종을 개발하고 협약기업의 전문가가 훈련과정에 참여해 프로젝트 기반의 맞춤형 훈련을 실시한 결과, 협약기업에 대한 취업률이 증가하고 기업의 만족도도 향상되는 등 산학협력 운영 모델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베스트직업훈련기관과 같은 우수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협업하여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문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훈련기관에 감사를 전하며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이 계속 확대·선정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직업
훈련기관 10개소 선정 발대식 개최
보도자료



현장NOW 2

● 자동차산업
●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

2021년 7월 26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26일(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자동차ISC)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미래차 제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엔진, 동력기관 등 내연기관 부품 수요가 점차 감소하면서, 기존 자동차 부품·정비업계 종사자들은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다. 자동차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미래차 신규 인력 육성과 재직자 직무 전환 등이 시급하나, 산업계에서는 직무별 인력 수요와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동차산업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미래차 산업 직무능력 표준화 등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ISC를 출범시켰다. 자동차 ISC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차 인력양성 수요와 내연기관 자동차 종사자들의 전직 수요 등을 분석하여 현장 중심의 훈련기준을 마련하고 재직자 직무전환·전직교육, 자동차 부품·정비 분야 고용유지 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자동차 ISC는 대표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사업에 착수해 추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협·단체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자동차 ISC가 미래차 시대를 여는 중심축이 되어 자동차산업의 시급한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신기술을 보유한 미래차 인력양성과 내연기관 자동차 종사자들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장NOW 3

● 제77차 인재개발(HRD)
● 정책포럼 개최

2021년 7월 28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7월 28일(수) ‘한국의 진로교육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7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김민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초·중등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이재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학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유한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진로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이종범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영식 경남대학교 교수,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매우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며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에 맞추어 진로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 보도자료



제7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개최 보도자료



연장NOW 4

● '21년 제1회 K-디지털 트레이닝
 ● 해커톤 시상식 개최

2021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29일(목) 제1회 K-디지털 트레이닝 끝장개발대회(이하 해커톤)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심투데이터(Sim2Data)팀 등 7개 팀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구분	대통령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선정	Sim2Data	청(聽)개구리	MYBIDE, 우리가그린	Watchers, 리뉴어블, ADD

이번 해커톤은 K-디지털 트레이닝의 청년 훈련생들에게 그간 훈련을 통해 쌓아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습의 장을 제공하고 훈련과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5월 26일 접수를 시작으로 훈련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수료한 202명의 청년, 48개의 팀이 참여했으며, 기획서 심사, 온라인 해커톤을 거쳐 최종 본선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됐다. 해커톤의 주제는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해 디지털 뉴딜·그린뉴딜·안전망 강화 3대 분야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이었다. 주목할 점은 수상한 7팀 모두 비전공자들이라는 점인데,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비전공자들도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의가 크다.

본선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는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 “창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인문계·비전공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심사평을 남겼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도 심사 이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들 수준을 보니, 대학도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감상을 남기기도 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심투데이터(Sim2Data)팀은 가상환경을 활용하여 안전, 재난, 환경 등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특수한 조건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대용량 데이터 가공·정제뿐 아니라 검증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초기 인공지능 개발과정에서 많이 겪게 되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단순화 및 고속화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향후 이 프로그램이 활용되면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청년들이 어렵지만, 오늘 수상팀의 대부분이 코딩과는 무관한 비전공자인 걸 보고나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신기술·소프트웨어 관련 취업과 창업을 향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 역량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년 제1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 개최
 보도자료



해커톤이란?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 참여자가 팀을 구성하여 아이디어 도출 및 협업을 통해 앱·웹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

K-디지털 트레이닝이란?

- *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 등이 참여하여 청년층 구직자 누구에게나 전공 상관없이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기술을 배우고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과정 제공
-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전액 지원

● 2021년 4월·5월·6월
●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2021년 4월·5월·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보도자료



2021년 7월 27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국내 농·수산물을 이용한 제과제빵 기술을 보유한 이석원 대표(랑콩뜨레과자점) 등 3명을 올해 4월~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7월 27일 세종청사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장관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을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하고 있다.

4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랑콩뜨레과자점 이석원 대표는 지역특산물, 천연발효종 등 양질의 재료를 이용한 제과제빵 제조기술로 안전하고 맛있는 신(新)먹거리 문화 창출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제과제빵 제조 관련 특허기술을 11건 보유하고 있으며, 울산시 공식 진로체험장으로 승인받은 사내 기술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특강을 하는 등 재능기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이 대표는 “소상공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신재료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에이스기계(주) 이철 대표이사는 세계적 수준의 자동접착기를 개발한 포장자동화 설비분야의 전문기술인이다. ‘미국에 팔 수 있는 기계를 만들자’를 모토로 기술개발에 몰두한 이 대표의 야심작은 ‘시그니처 에이스(SIGNATURE ACE)’ 자동접착기로, 뛰어난 가성비로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초고속 자동포장기계인 ‘오토팩카’ 등 특허 28건을 획득한 이 대표는 “저의 기술을 청년들과 공유하여 기술습득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싶다”라고 밝혔다. 에이스기계(주)는 최근 신안산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포장자동화 설비 인력을 양성할 ‘스마트패키징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자동포장 설비에 특화된 교육과 전기·전자·기계·포장·디자인·인쇄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교육이 기대된다.

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주)미래지반연구소 황은아 대표이사는 지반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연약지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다. 황 대표이사는 27건의 특허와 2건의 실용신안, 1건의 ISO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8년 개발한 ‘연약지반 개량용 인입식 PBD 장비’는 항만 매립공사 및 연약지반개량공사에서 막대한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연약지반 관련 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분야를 원스톱으로 수행 중인 황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를 운영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은 기술과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중심 사회의 선도자”라고 전하면서,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예비 숙련기술인인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숙련기술의 멘토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NOW 6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① 사례집 발간

2021년 7월 21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21일(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특성화고, 훈련기관 등 13곳의 운영사례와 성과를 담은 「일터 현장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은 기업, 학교,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교육훈련·자격에 NCS를 활용하며 현장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NCS 활용의 주요 성과는 ▶기업 맞춤형 채용으로 이직률 감소 및 신입사원 재교육비용 감소, ▶직무중심의 배치·승진·임금체계로 인사관리 효율성 증대, ▶현장맞춤형 재직자 훈련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역량있는 인재 발굴 등이다.

직업능력정책국 송홍석 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고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일터 현장에서 사람을키우는 일의 핵심 기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사례

1 스펙보다 직무능력! 맞춤형 채용으로 이직률은 낮추고 ↓ 경쟁력은 높이고 ↑

- ◇ 매년 2백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성장해온 (주)서울랜드의 큰 고민 거리 중 하나가 인력난이었다. 안전관리와 수많은 이용객을 응대하는 업무강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인력이 많아 전체 280명 중 120명이 일하는 운영팀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 ◇ 이에 NCS 기업활용 컨설팅을 통해 유원시설 운영관리, 마케팅기획, 단체영업 직무를 분석했다. 이후 지원자의 적성과 업무역량, 서비스 제공 능력을 파악하는 상황면접을 진행하는 등 NCS 기반의 채용을 통해 월평균 이직률이 9.7%에서 4%로 감소했다.

2 일터가 배움터! 현장직무 중심의 재직자 훈련으로 직무능력 향상

- ◇ 거제제일해양주는 2016년 조선업계 불황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위기를 겪게 되었다. 돌파구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키워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NCS를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 결과 업무몰입도, 숙련도가 상승하면서 품질이 향상되었고 신규 건조물량 확보와 함께 이직률도 40%에서 10%까지 감소했다.
- ◇ 90년대 이후 헤어미용업의 호황기와 함께 미용업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일제 강점기 때 받아들인 일본의 미용기술은 여전히 현장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에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NCS의 기반 자격을 설계했다. 이렇게 개발된 NCS는 미용 브랜드들이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물꼬를 터주었고, 비싼 로열티를 주고 해외브랜드의 커리큘럼을 선호 하던 관행을 깨는 전환점이 되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사례집 발간 보도자료



국가직무능력표준(NCS)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

현장NOW 7

● 워크넷으로 코로나 극복!
● 취업성공 후기 공모전 당선작 공개

워크넷으로 코로나 극복! 취업성공 후기 공모전 당선작 공개 보도자료



2021년 7월 22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7월 22일(목),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워크넷으로 코로나 극복! 취업성공 후기 공모전’ 당선작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북돋고, 워크넷 사용 노하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워크넷 취업 성공 후기를 공모했다. 내·외부 심사위원이 내용적합성, 구체성, 완성도 등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명을 선정했다.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대상	당신의 자존감을 찾아드립니다 -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취업 성공기
최우수상	60대를 세 번 취업시킨 1등 공신 워크넷 - 명예퇴직 후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을 활용해 재취업한 소감과 노하우 소개
우수상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나의 워크넷 취업 성공기 - 무역회사에 다니던 가장, 코로나19로 구조조정을 겪고 워크넷을 활용해 취업 은퇴는 있어도 정년은 없다 - 39년 재직한 대기업 퇴직 후 인생 2모작에 성공한 50대의 이야기
	‘내일은 또 뭐하지.’ 그 고민을 해결하다 - 워크넷 취업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취업
장려상	조급하기보다는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 코로나19로 공항 퇴직 후 워크넷 인공지능 추천을 활용해 취업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길이 보인다 - 20년 넘게 사무직에 종사한 60대, 워크넷 고령자 우대 채용관을 활용해 생산직 취업
	“워크넷을 두드려라. 그러면 취업문이 열릴 것이다!” - 코로나19로 실직한 요리사, 워크넷과 고용센터 서비스를 활용해 요양병원 취업
	60세 넘은 나이에 재취업을 하다. - 사무관 퇴직 후 워크넷 일자리 정보를 활용해 휴게소 취업
	옛말 같은 칠전팔기가 2021년에도 통하다 - 30대, 모바일 워크넷의 위치 기반 지역 일자리 정보를 활용해 협동조합 재취업

대상은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A씨의 ‘당신의 자존감을 찾아드립니다’가 선정됐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A씨는 7년전 육아 부담으로 퇴직한 이후, 경력 개발을 꿈꾸며 재취업에 도전했다. 취업 준비에 익숙지 않았지만, 워크넷의 메뉴를 세세히 살피고 ▲구직신청 ▲내 주변 채용정보 등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과거 대학생 시절 워크넷에 등록한 이력서를 갱신하였다.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작성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더워크 AI(TheWork AI)’ 서비스를 활용했다. 추천받은 공고 중 근무시간과 연봉,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한 뒤, 워크넷 경력단절여성 취업가이드를 참고해 면접에 합격했다. 그는 “워크넷을 통해 시작하면 막연한 걱정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다른 분들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 당선작 원문은 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진로] 메뉴의 [취업성공후기]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취업하기 위해 곳곳이 노력하는 모든 구직자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취업 후기를 통해 더 많은 구직자가 워크넷 서비스를 인지하고 활용해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누리집 주소
(www.youth-jobfair.career.co.kr)

현장NOW 8

● 고용센터에서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① 대해 집중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운영사례를 모든 센터로 확대
 자동차 제조업 등 총 103개 업종 집중 지원**

2021년 8월 2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의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지역 전략업종 기업들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회복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업종의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서울고용센터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 운영을 통해 여행업 이직(예정)자 967명에게 취업상담 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145명이 취업에 성공한 성과가 있었는데, 업종별 특별취업지원 사례를 모든 고용센터에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의 경기, 산업여건, 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해 7월에 1~3개 지역 전략업종 또는 고용위기업종을 지정하여 총 103개의 업종(지역 전략업종 81개, 고용위기업종 22개)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종의 기업, 구직자, 이직(예정)자 등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집중하여 제공한다.

지역 전략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의 채용수요 파악과 함께 ‘괜찮은 구인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신규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적극 안내하여 일자리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업종·직종별 협회, 각급 학교,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전략업종에 적합한 구직자를 발굴하고 취업의욕과 능력을 갖춘 준비된 구직자를 기업과 연결하는 등 취업알선을 실시하게 된다.

고용위기업종에 대해서는 업종·직종별 협회, 고용보험 기초자료 등을 통해 이직(예정)자 명단을 확보하고,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용센터 등에서 이용 가능한 사업 및 제도를 설명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한다. 서비스 참여 대상자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해 파악된 전직 희망 여부, 재취업 희망업종 유무 등 개인 의사 및 상황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센터가 전반적으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면서도,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업종·지역별 고요상황을 자세히 살피면서, 지역·현장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센터별 특별취업지원업종 지정 현황

고용센터	지정 업종
서울강남센터	정보통신업, 면세점업, 호텔숙박업
인천센터	뿌리산업, 항공산업
평택센터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물류산업
울산센터	자동차산업, 조선업
대구센터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광주센터	자동차부품 제조업, 가전제품 제조업
청주센터	식품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

고용센터에서 지역 전략업종, 고용위기업종에 대해 집중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보도자료



현장NOW 9

● 2021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계획

훈장 6점, 포장 7점, 대통령표창 36점 등 총 176점 포상 예정

2021년 8월 6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년 8월 6일(금)부터 9월 3일(금)까지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위한 국민 추천(신청)을 받는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상을 주는 제도로 '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해주신 개인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포상은 4개 부분(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촉진, 장년고용촉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구성되며, 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부문 등의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우편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 조서 등 신청서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정부포상 접수는 8월 6일(금)부터 9월 3일(금)까지이며, 접수 이후에는 공개검증과 공적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12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kr>) 뉴스·소식·공지사항,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을 참조하면 된다.

현장NOW 10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1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8월 11일(수)부터 9월 23일(목)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률안에는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가칭>능력은행제가 포함되어 있다.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여러 경로(교육·훈련, 자격 등)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능력이 증시되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NCS가 교육·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되었으나, NCS를 토대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되어 <가칭>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 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하여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계획 보도자료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 * 대상: 개인(사업주, 근로자,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단체(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 * 규모: 176점(훈장 6, 포장 7, 대통령표창 36, 총리표창 37, 고용부장관표창 90)
- * 접수기관: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가칭>능력은행제 개념

국민(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바탕으로 저축·관리하여 활용(취업, 인사배치 등)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

2021년 6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1

주요결과

- ❖ 기간의 취업자 회복세가 지속되고 민간일자리 회복과 함께, 청년·상용직·전일제 일자리 증가 등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거나 1년여간 지속된 고용충격의 여파, 방역 관련 제약요인, 고용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여전히 관찰됨
- ❖ 정부는 금년 중 취업자수가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16.4만 개 일자리 창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겠음

취업자 및 실업자

6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8.2만 명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

* 취업자(만 명, 전년비) : ('21.1)△98.2 (2)△47.3 (3)31.4 (4)65.2 (5)61.9 (6)58.2

◆전월대비 취업자(계절조정)는 +1.8만 명 늘어나 5개월 연속 증가하며 2월 이후로는 +84.6만 명 증가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 명) : ('21.1)△29.8 (2)53.2 (3)12.8 (4)6.8 (5)10.1 (6)1.8

◆고용률·경황률이 상승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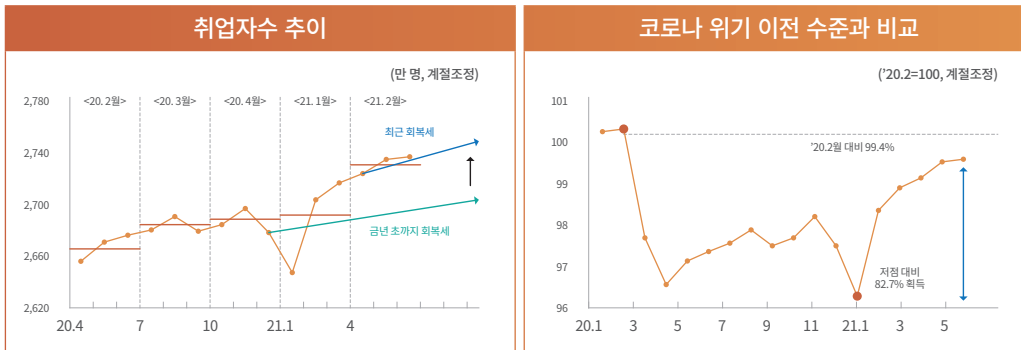
*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21.1)△2.6 (2)△1.4 (3)0.3 (4)1.0 (5)1.0 (6)0.9

* 경황률 증감(전년비, %p) : ('21.1)△1.7 (2)△1.0 (3)0.3 (4)1.0 (5)0.7 (6)0.5

◆실업자 수는 감소하고 실업률도 하락

* 실업자(만 명) : ('21.1)157.0 (2)135.3 (3)121.5 (4)114.7 (5)114.8 (6)109.3

* 실업률(%) : ('21.1)5.7 (2)4.9 (3)4.3 (4)4.0 (5)4.0 (6)3.8



업종별로는 제조업 고용은 감소 전환, 서비스업은 4개월 연속 증가

◆제조업 고용이 △1.0만 명으로 감소 전환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1)△4.6 (2)△2.7 (3)△1.1 (4)0.9 (5)1.9 (6)△1.0

◆서비스업은 민간·공공 일자리가 모두 개선되며 +44.2만 명 증가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1)△89.8 (2)△50.2 (3)26.2 (4)50.7 (5)47.7 (6)44.2

◆농림어업 취업자는 증가 전환, 건설업은 증가세 지속

* 농림어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1)△1.4 (2)3.3 (3)△2.6 (4)△0.3 (5)△0.3 (6)1.6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 명) : ('21.1)△2.0 (2)2.8 (3)9.2 (4)14.1 (5)13.2 (6)14.0

2021년 6월
고용동향



중상상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56.7만 명), 비임금 근로자(+1.5만 명) 모두 증가

* '21.5 → 6월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 (상용직)35.5 → 32.1 (임시직)30.7 → 36.0 (일용직)△2.0
→ △11.4 (고용유자영업자)△6.7 → △8.4 (고용무자영업자)5.3 → 11.3 (무급)△1.0 → △1.5

연령별로는 청년·50~60대 취업자는 증가, 40대는 증가 전환, 30대는 감소

* '21.5 → 6월 연령별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 명) : (청년)13.8 → 20.9 (30대)△6.9 → △11.2 (40대)△0.6 → 1.2 (50대)10.0 → 7.4 (60세 이상)45.5 → 39.9

* 3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으나 인구 감소를 고려한 고용상황은 지난해 수준 유지

일시휴직자는 감소(△32.6만 명)하고 주당 취업시간은 증가(+0.2시간)

* 일시휴직자(만 명) : ('21.1)89.2 (2)69.8 (3)42.7 (4)40.3 (5)42.2 (6)40.3

- 증감(전년비, 만 명) : ('21.1)34.6 (2)8.0 (3)△118.0 (4)△108.2 (5)△59.8 (6)△32.6

* 주당 평균 취업시간 증감(전년비, 시간) : ('21.1)△1.8 (2)△1.2 (3)1.0 (4)3.4 (5)0.6 (6)0.2

청년층 취업자수는 3월 증가 전환 이후 4개월 연속 증가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 명): ('21.1)△31.4 (2)△14.2 (3)14.8 (4)17.9 (5)13.8 (6)20.9

* 청년층 인구(전년비, 만 명): ('21.1)△13.2 (2)△14.2 (3)△13.6 (4)△12.9 (5)△13.6 (6)△13.4

◇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확장실업률은 하락

* 청년 고용률('20.6 → '21.6, %) : 42.0 → 45.1 <+3.1%p>

* 청년 실업률('20.6 → '21.6, %) : 10.7 → 8.9 <△1.8%p> 청년 확장실업률('20.6 → '21.6, %) : 26.8 → 23.5 <△3.3%p>

◇ 청년 비경활인구는 청년 취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 청년비경활인구 증감(전년비, 만 명) : ('21.1)13.1 (2)△3.5 (3)△30.8 (4)△35.9 (5)△25.0 (6)△27.9

📊 평가 및 대응

6월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비 취업자 수가 3월 (+)전환 이후 3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큰 폭 증가하고 전월비 취업자 수(계절조정)도 5개월 연속 증가

정부는 취업자수가 금년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고용의 내용 측면 개선·보완 노력도 강화

- ① 고용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범정부적 역량 결집
- ②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차 추경안 등에 포함된 16.4만 개 일자리 창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과제를 신속히 이행
 - 30~40대,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주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장 법제화, 1%대 저금리 경영자금 융자 등을 통한 지원을 한층 강화 예정
- ③ 민간 일자리 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 강화
 - 한국판 뉴딜 2.0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5대 유망 新산업육성·지원을 위한 문제해결형 대책을 순차 발표·추진
 - 대·중소 협업, 기업주도 훈련 프로그램 확산을 통한 첨단분야 인력 양성·공급 등 “민간-정부 협업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방안 마련

연구NOW 1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육성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20년 12월
장혜정, 고혜원, 박천수, 손희전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체계 및 성과평가 현황 분석
 - 훈련기관 육성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훈련기관의 전반적인 질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모색 및 국내외 직업훈련 등 선진사례 조사
 - 신기술·신산업 등 특수목적 훈련 활성화 측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등을 고려한 신규 지표 및 훈련성과에 대한 통합적인 품질관리체제를 제안하고 우수훈련기관 선정제도 개선방안 모색
- 주요목차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개념, 성과평가지표, 관련 정책 및 제도
 - 국내외 성과평가 사례 분석
 - 3개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훈련기관 육성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NOW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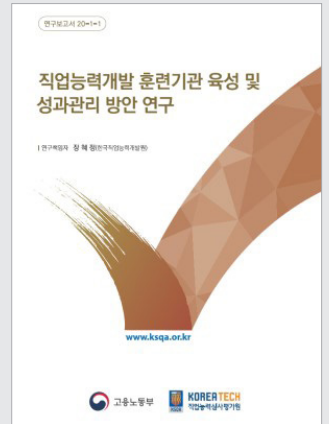
● 중장기 인력수급
변동 요인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12월
이시균 외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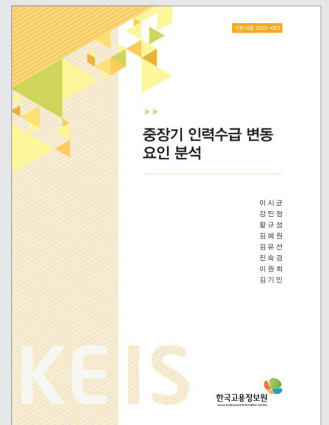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진보 및 소득향상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중장기 인력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
- 주요목차
 - 인구 효과에 따른 인력수요 효과
 - 고용의 질 격차와 청년 고용
 - 노동보조금 정책의 고용 변동 분석
 - 노동시간 실태와 추이 분석
 - 자동차산업 지역 일자리의 고용 효과 분석
 - 전공, 산업, 직업의 연관 매커니즘 분석
 - 스포츠 산업의 고용 변동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육성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중장기 인력수급
변동 요인 분석



2021
KLI 노동통계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의 직종별 전공분야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의
직종별 전공분야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KRI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NOW 3

● 2021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21년 7월
김유빈, 이기쁨, 지상훈, 임용빈, 조규준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2021년 대표적 통계 제시
 - 주요 쟁점별 대표적인 통계의 시계열 변화뿐 아니라 심층적인 노동통계 지표를 제시하여 노동 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함
- 주요목차
 - 국민계정 통계 및 노동소득분배율
 - 고용통계 및 고용보험 통계
 - 임금 및 노동생산성(임금, 노동비용, 최저임금제, 노동생산성, 기업경영)
 - 근로자 생활(근로시간, 불평등과 빈곤, 산업안전 및 근로자 건강, 사회보장)
 - 노사관계

연구NOW 4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의 직종별 전공분야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년
박윤희, 이수경, 임수원, 박혜영, 이하린, 김민영

주요내용

- 훈련 교·강사 2,794명 대상 전공분야 보수교육 요구사항 설문조사 실시
- 요구분석 결과, 훈련 교·강사의 교육 요구가 높은 'NCS 세분류 169개분야'와 '디지털 신기술 7개 분야' 최종 도출



7.6.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발대식

7.12.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 운영

7.2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사례집 발간

7.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7.26.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출범식

7.27. 2021년 4월·5월·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7.29. 2021년 제1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

8.2.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8.11~9.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9. 2021년 컨소시엄 일학습병행 사업 포럼

7.26. 2021년 자동차 ISC 출범식 개최

7.29.~7.30. '21년도 제4차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

8.2.~ 기업직업훈련바우처 시범사업 사업장 모집

8.3. 「자격검정 혁신 추진단」키오프 회의

8.9.~8.23. HRD4U-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강연자 순차 공개

8.9. 잡코리아 홈페이지 학습기업 전용채용관 오픈

8.9.~8.30. 2021년도 국가자격취득자 수기 공모

8.12. 제3차 NCS-HRD 융합 포럼 개최

7.5.~9.10. 제2회 대한민국 신직업, 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응모주소는 newideacontest@gmail.com 로 이메일 지원

7.21.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처-한국고용정보원 2차 간담회

7.26.~8.4. 온라인청년센터 청년 서포터즈 1기 모집
* 지원방법은 naver.me/GLKFqHz에서 온라인 신청 (www.youthcenter.go.kr 공지사항 참고)

8.20.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고용정보원 세션

~7.12. 제5회 벤처창업아이템경진대회
작품 접수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모집 실시

- 서울정수, 서울강서, 성남, 남인천, 화성, 강릉,
대전, 전남, 익산, 영남융합, 울산, 동부산캠퍼스

* 원서접수는 ipsi.kopo.ac.kr

7.1.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임시총회

7.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세미나

7.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출범식

7.9. 2021 일학습병행·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포럼

8.5. 한국 국·공립 고등학교장회 연수회

8.20. 한국자동차연구원 업무협약

8.24. 주한 르완다 대사 대학방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8.10. 민간 LMS 3차 지원 대상
훈련기관 접수 안내

8.20. 4차 원격훈련 정기심사 결과 발표

8.20. K-digital 트레이닝 3차 신규 심사
결과 발표

8.26. 노사 협력형 중장년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발표

8.30. 훈련 단계별 품질관리 가이드북 제작

7.6. 아시아개발은행(ADB)-한국직업능력
연구원 공동 웨비나 ‘한국의 직업교육
정책과 교훈’

7.28. 제7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한국의 진로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8.10., 8.12. 2021년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컨설턴트
워크숍

8.12. 2021년 제2차 커리어넷
진로상담위원 워크숍

8.23. 2021년 제2차 사회정책포럼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정책의 부처 간
정책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정책 우수사례 확산’



제15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Digital Transformation & K-HRD

| 디지털전환 그리고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2021.9.13.(월) ~ 14.(화)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기조 강연자



Keynote1

윌리엄 로스웰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교수

Measuring the Far Transfer of Learning

*이진구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동 강연



Keynote2

졸 콜리어

옥스포드대학교 교수

'자본주의의 미래' 저자

Greed is Dead



Keynote3

정재찬

한양대학교 교수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것들

- 직업에 관하여

동시강연 주요 강연자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

Untact 시대, 이미에 Contact하는 융합과 창조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원장
능력중심채용, 공정을 말한다



김정훈

UN SDGs협회

사무대표
글로벌 ESG 흐름과 기업의 대응방안



이길상

길&People 대표

OKR, 성과와 성장을 동시에 잡다



김민우

pxd 선임&파트너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채용 경험 변화: 디지털은보통 그리고 Z세대



박재성

우아한형제들 이사

우아한테크코스가 지향하는 교육은?



장석현

스타벅스커피코리아 팀장

커피에 데이터를 입히다



이승엽

아놀자 퍼플파트너십 실장

Global Tech Company YANOLJA

컨퍼런스 참관 등록 안내

※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행사일정 및 진행방법 추후 변경 가능

등록 방법 | 온라인 사전등록 www.hrd4u.or.kr/hrdconference (현장등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 | 2021년 8월 25일(수) 10:00 ~ 9월 13일(월) 10:00